

민
정
실

음
진
천

BUDDHANARA

우리는 햇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매주 일요일: 정기 법회 11시
첫째주 일요일 11시 초하루 기도 법회
둘째주 일요일 11시 인등 기도 법회
셋째주 일요일 11시 경전 사경법회 (관세음보살 보문품경)
넷째주 일요일 11시 특별 야외 법회
다섯째주 일요일 11시 전법 기도 법회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Sun Meeting -

Every Saturday 10am. (매주 토요일 10시)
Program: Sitting & Walking Meditation, Da-do (Tea Ceremony)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이달의 법구경: - 진리의 물 마시는 사람
 평안한 마음으로 이를 즐기고,
 지혜 있는 사람
 부처님의 가르침 속 진리에서
 즐거움을 찾네.

He who drinks of the waters of Truth, he rests in joy with mind serene. The wise find their delight in the DHAMMA, in Truth revealed by the great.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토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06 년은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기획/ 미국불교 新유행 中 : 왜 ‘JuBu(유대인 불자)’ 인가

“타종교서 찾을 수 없는 자비 / 포용정신 고통초월방법 매력”

유대교도이면서도 불교를 통해 정신적 안정을 찾는 ‘JuBu(유대인 불자)’ 증가 현상이 미국사회를 중심으로 서구전반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들은 스스로를 ‘주부’라고 자칭하며 집안에 불상까지 모시고 있다. 이를 두고 미국 내 주요 언론들은 “종교간 창조적 만남” “역설적인 평화(at peace with the paradox)” 등으로 표현하며 앞 다투어 보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JuBu’일까?

미국사회가 ‘주부(JuBu-Jewish Buddhist, 유대인불자)’에 열광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불교의 자비와 포용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 ABC 방송의 빌 리데커(Bill Redeker) 앵커의 설명(지난 5월 2일 방송분)은 이를 잘 대변한다.

빌 리데커씨는 “불교가 지구상에서 가장 용서하고 포용(accepting)하는 종교중의 하나”라면서 “(불교가)종교본연의 모습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신의 일본인 친구 ‘히사요 사카타’씨의 말을 인용했다. 사카타씨는 “일본인들은 신도(神道)로 태어나지만 불교신자로 살고 죽는다. 우리 종교(불교)는 어떤 절대자가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acceptance)하는데 있다. 연민을 갖고 다른 사람을 대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이며 본질적으로는 황금률(Golden Rule,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을 따르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미국인들은 “유일신을 믿는 유대교와 신이 없다고 믿는 불교의 결합이 매우 독특한 패러독스”임을 주목하면서도 “혼합종교신자들인 ‘주부’가 불교를 통해 종교 본연의 목적에 더욱 충실해주고 있다”는 또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유대교 율법학자(랍비)가 되기 전 10년 동안 불교를 연구했다는 알란 루(Alan Lew)씨도 LA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유일신을 믿는 유대교와 궁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불교의 역설적인 결합”이라며 “미국 내에서 두개의 종교가 효과적이고 훌륭하게 창조적 만남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부’에 열광하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불교적 수행이 자신의 원래 종교인 유대교에 대한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준다는 데 있다. 유대교와 불교라는 종교가 모자이크되면서 불교가 유대교의 부족한 부분인 정신적인 세계를 심오하게 해주어 결국 유대교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게 된다는 것.

〈불교도 유대인에게 보내는 편지〉의 저자 데이비드 고틀립(David Gottlieb)씨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대교는 최상의 상태에서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최악의 상태일 때에는 그냥 놔둘 뿐(enshrine)인데 반해, 불교는 과거를 되돌아보지 않고 인생의 고통(suffering)을 초월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명백하게 고통의 끝을 찾아간다는 점에서 호소력이 크다”고 풀이했다.

그러나 ‘주부’들이 불교를 받아들이는 정도에 편차가 없는 것도 아니다. “종교 본연의 모습을 알게 됐다” “불교를 통해 더욱 독실한 유대인 됐다”는 이들이 대부분이지만 한편으로 “혼란스럽다”는 이들도 없지 않다. 이들은 정신적 공백을 메우려 불교를 실천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집안에 불교 상징물을 놓아두는 것에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다.

미국에서 불자로 산다는 것

“한인 불자 있다면 상 줘야할 판”: 한인 교포사회 기독교 일색, 외롭게 불심 지키기 어려워

캘리포니아 전체 주에서 인구 5만이 넘는 도시 몇 군데를 다녀 보니 미국은 이민으로 이루어진 사회라는 점이 확연히 눈에 들어온다. 사람의 피부색과 쓰는 언어도 다양하고 종교적인 색채도 가기각색이다. 침례교회 옆에 일본 절이 있고 유대교당 시나고그(Synagogue) 옆에 티베트 사찰이 있고 힌두교 사원이 있는 곳이 있다. 한 가지 공통점이라면 완전히 다른 성향의 종교라도 서로 왕래하며 ‘내 것’ ‘네 것’ 이 없이 사이가 좋다는 것이다. 금발의 백인 노부부가 교회에서 예배를 본 다음 길 건너 티베트 사찰에 손을 잡고 들어와 불공도 같이 드리는 모습은 참으로 보기 좋다. 반야심경을 하고 “아멘” 하는데도 어색하지 않다. 미국은 타 종교에 대한 존중이 단연 최고를 자랑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런 곳에서도 유독 한국 교포 사회만은 다르다. 교포 사회는 작은 기독교 국가를 연상시킨다. 한국타운·마켓 어디를 가나 “집사님” “권사님” 호칭을 듣게 되니 마치 교포사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다. 흔히 교포를 만나면 첫 인사가 “어느 교회 나가세요?” 가 되어 있다. 미국 땅에서 한국 사람이 10명 만 모여도 개척 교회가 생긴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문제는 비 기독교인으로 살 때 고달픈 일이 많다는 점이다. 절에 나가는 불자가 사는 동네에 한인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집중적으로 전도의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소위 왕따를 당하거나 둘 중 하나이다. 한국 교포들이 미국에서

불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갈수록 눈으로 확인되고 있다. 산호세에서 한국 회사에 다니는 한 보살님은 직장 직원들이 모두 같은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인데 그녀는 사장을 포함한 전 직원들에게 집중적인 전도 대상이 되어 있다. 한인 정보수집 차원에서 교회에 반드시 나가야 한다는 말도 있지만, 교회는 구역으로 나뉘어져 막 도착한 가족들을 위해 같은 구역에 사는 권사 집사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여 도움을 준다고 한다. 그러나 불자로서 살 때는 이민초기에 모든 것을 홀로 개척해 나가야 하고 외로움도 감수해야 한다. 절을 찾아 가려 해도 너무 멀리 있거나 또 마땅히 갈 만한 한국 사찰도 없으니 더욱 더 신앙을 지속하기가 힘들다.

캘리포니아 주 전체에 28 개의 한국사찰이 있고 북가주에는 10 여개가 있다. 불상을 모신 법당이 있고 상주하는 스님이나 법사가 한달에 2 번 정도 법회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곳이다. 이스트베이 지역만 해도 한국 사찰이 7 개밖에 안 되는데 반해 한국 교회는 개척교회 포함 400 여 개가 넘는다. 북가주의 경우엔 남가주보다 한국 교포 숫자가 크지는 않지만 그간 사찰 간판을 달았어도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곳이 많았다. 지난 몇 년 사이 하루 아침에 절 문이 잠기고 스님이 사라지는 경우도 몇 번 있었다 한다.

한국 사찰 몇 군데를 다니며 느낀 것 중 하나는 유난히 불교가 뭔지도 모르다가 미국 이민 와서 불자가 된 교포들이 많다는 점이다. 외로워서, 또 고달픈 이민 생활에 신앙을 갖고 싶어서 사찰이 없어도 혼자서 책을 보고 절을 하거나 독경도 하는 불자도 있다. 북가주의 한국 사찰은 수요가 적은 교포 불자들을 위해 포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거기엔 이유가 있다. 미국 포교는 쉽지 않다. 첫째, 한인 교포들의 생활이 경제적으로 빠듯하게 사는 집이 대부분이다 보니 큰 보시가 없고 보시 개념이 희박하다. 아이들 조기유학 때문에 잠시 와 있는 엄마들 역시 거쳐 가는 곳으로 여기니 적을 두려 하지 않는다.

이민 와서 뒤늦게 불교를 만난 신도들은 불법에 목말라 한다. 우스개 소리로 불자로서 신앙을 지키는 교포들에게 상장을 나눠 줘야 한다는 말도 있다. 아직도 확장 세력이 큰 교회에 많은 불자들을 빼앗겨 더 이상 한국 사찰이 필요 없게 될 지역도 생길 것이다. 시대의 어느 먼 훗날 언젠가 일요일이 되면 서구인들이 모두 절에 가고 한국 교포들은 모두 교회에 갈 거라는 말이 머지않아 현실로 나타날지 모른다.

- 김나미 불자님 -

불교와 인간관계

“내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도 베풀라”; 중생구제는 자기구제로 귀결 대가 상관없이 먼저 베풀어야



국가대표 축구선수인 박지성은 시합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이렇게 말한다. “그라운드에서 서면 이곳에서는 내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22 명의 선수 중에서 나보다 나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주문을 걸죠. 무엇보다 나 자신의 능력을 믿는 일이 중요합니다. 엄청난 합성과 야유가 난무하는 유럽에서의 경기라면 더욱 그렇죠.”

이야말로 진정한 주문의 힘이 아닐까? 자신이 최고라는 그의 주문은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어느 경기에서든 그는 기죽지 않고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 자신이 갖고 있는 기량을 십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치는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자신이 좋아하고, 또 잘하는 분야를 설정하여, 그 분야에서는 자신이 최고라고 주문을 걸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주문이 제대로 걸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연습이 뒷받침되어야만 할 것이다. 연습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조건 자신이 최고라고 해서는 효력이 없다.

대승불교의 이치도 이와 유사하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베풀라고 하는 것이다. 남에게 베풀다보면 스스로에게 강력한 주문이 걸린다. 재산이든 즐거움이든 남에게 베풀다보면, 내가 갖고 있다고 하는 신념이 생기는 것이다. 갖고 있기 때문에 베풀 수 있는 것이니까. 예컨대, 남을 기쁘게 해주고자 노력하다보면 스스로가 기뻐지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중생제도에 헌신하다보면 자기제도가 먼저 되어지는 이치가 여기에 있다. 머무는 바 없이 베풀다보면 내가 먼저 부유해지는 이치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는 첫째로 일체중생을 제도하리라는 마음을 내고, 둘째로 머무는 바 없이 베풀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지진으로 인하여 수천 명이 죽어

넘어가더라도 그 사람의 치통보다도 덜 심각하며, 그의 발에 생긴 무좀은 쓰나미 해일보다도 더욱 중요한 관심의 대상인 것이다.

뉴욕의 한 전화회사에서, 전화 통화 중에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가를 조사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나’라는 1 인칭 대명사였다. 조사에 의하면, 무작위로 뽑은 500 통화 가운데서 ‘나’라는 인칭대명사가 무려 3690 회나 쓰였다는 것이다. 이렇듯 원래 인간이란 상대방에게 관심을 기울이기 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더 많이 갖는 법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신에게 관심을 갖거나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주는 이를 좋아하기 마련이다. 23 명의 여자들의 마음과 저금통장을 차례차례 손아귀에 넣은 유명한 결혼사기범은 그 비결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 여자 얘기만 듣거나, 그 여자에 관한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사 오케이지요.” 상대방의 말을 열심히 들어주고 상대방에 관한 이야기만 줄곧 해대는 방법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 대해서도 효과적이다. 인간은 누구나 주위 사람들로 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한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느끼고 싶어 한다. 이처럼 주위 사람들에게 ‘진정한 인정과 아낌없는 칭찬’을 받고 싶은 것은 인간의 공통적인 마음이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칙은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도 상대방에게 베풀라’는 것이다. 칭찬받기를 원하면 먼저 칭찬부터 하라. 인정받기를 원하면 먼저 인정하라. 이것이 중생제도를 자기제도의 첫걸음으로 삼는 대승불교의 이치인 것이다.

쌍계사 승가대학 강사

불교와 제사

죽은 이보다는 ‘산 사람’ 공부하는 기회

조상 공덕 기리는 본래 의의는 자신의 삶 돌이켜 다스리는 것

설날에 즈음해서 어떤 분이 제사에 관해 질문을 했다. 사람이 죽으면 환생을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영혼이 이미 어딘가에 가셨을 텐데, 현세에서 제사를 지내는 의미가 무엇인가. 또한 제사음식을 드시러 조상들이 오신다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건가. 마지막으로 현세의 나도 과거의 누군가였을 텐데, 나를 위해 누군가가 제사를 지내는 곳이란 기억이 없다.

이러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해 간단히 답변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사는 죽은 사람을 위해 지낸다기보다 산 사람을 위해 지낸다고 보는 것이 옳다. 말하자면 죽은 사람을 빙자해 산 사람이 공부하는 것이다. 조상의 공덕을 기리면서 스스로의 삶을 돌이켜보는 시간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제사 지낸다’는 말보다는 ‘재(齋) 지낸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다. ‘재’는 재계한다는 의미로서,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한다는 뜻이다.

둘째, 제사를 지낼 때 영혼이 온다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예컨대, 성냥불을 켜다 꺾을 때 그 불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간 것인가. 단지 연(緣)따라 왔다가 연(緣)따라 갈 뿐이다. <금강경>에서도 말하지 않는가.

여래(如來)란 좃아온 바 없으며 가는 바가 없으므로 그 이름이 여래라고. 영혼도 연이 닿으면 올 것이고, 연이 닿지 않으면 오지 않는 것이다. 연(緣)이란, 아직 중음신의 형태로 현세에 대한 애착이 남아 있거나, 제사 지내는 이의 지극정성이 통하거나 하는 등등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별 일 없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거나, 좋은 일이 생기거나, 막혔던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거나 한 적은 없는가. 누군가 나를 위해 공덕을 드린 거라는 생각은 안 드는가.

궁극적으로 영혼에 고정불변의 실체는 없다. 단지 하나의 분별식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분별식은 윤회의 근본이 되며, 궁극적으로 해탈되어야 할 것이다.

재미있는 예가 있다. 파조타(破墮) 화상이 승악에 있을 때, 산 중턱에 묘당 하나가 있었는데 영검(靈驗)하였다. 그 묘당 안에 조왕단 하나가 있는데, 원근에서 와 제사를 지내면서 살생을 많이 하였다. 선사가 어느 날 시자를 데리고 묘당에 들어가서 주장자로 가리키면서 말했다.

“그대는 본래 진흙과 기왓장으로 합쳐 이루어진 것인데 영검은 어디서 왔으며 성스러움은 어디서 생겼는가?”

그리고는 몇 차례 두드리고, 다시 말했다.

“깨졌다. 떨어졌다.(破也 墮也)”

그러자 조왕단은 무너지고 말았다. 조금 있다가 푸른 옷에 높은 관을 쓴 이가 나타나서 절을 하면서 말했다.

“저는 본디 이 묘당에 있는 조왕신입니다. 오랫동안 업보에 꼬달려 있다가 이제 화상의 무생법(無生法)을 듣고 해탈을

언었기에 일부러 와서 사례를 드립니다.”

이에 선사가 말했다.

“이는 그대가 본래 지니고 있는 본성이다. 내가 억지로 한 말은 아니다.”

그러자 신이 두 번 절하고 사라졌다.

일체 중생의 몸과 마음은 모두 꿈과 같다. 몸뚱이는 사대(四大)로 이루어져 있고, 마음은 육진(六塵)으로 돌아간다. 사대인 지·수·화·풍이 흩어지면 무엇이 ‘나’인가.

“깨졌다! 떨어졌다!”

중생도 일상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

Q: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과연 우리 같은 중생이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보통 사람들의 삶 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 깨달음이 있을까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신을 살피서 늘 깨어 있으면, 작은 깨달음의 경험이 쌓여 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 부다가야의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고 성도(成道) 하셨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다양합니다. 흔히 ‘해탈하셨다’, ‘열반을 증득(證得)하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경전에서는 전하는 그 내용은 삼법인(三法印)과 사성제(四聖諦), 팔정도(八正道)로 대표되는 연기법(緣起法)과 중도(中道) 등입니다. 그러나 경전의 많은 부분에서 내용보다는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들이 더욱 강조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입장은 불자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깨닫게 하는데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깨달음에 있습니다. 불자들의 궁극적인 목적도 스스로 깨달음을 이루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내용을 알아나가는 것은, 그것이 수행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깨달음의 ‘참 맛’보다 복을 얻는 ‘단 맛’에 몰두해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되셨지만 나 같은 미천한 존재가 어떻게 그렇게 될까?’ 하는 생각으로 신행을 한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발전이 없습니다. 변화도 없습니다. 불자는 부처님을 닮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와 그것에 대한 체험이 삶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요.

질문처럼 일상의 생활 속에서 깨달음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선 깨달음은 자신을 잘 살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 진정으로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은 풍부할지 모르지만 견해가 바르지 못해서 풍부한 지식이 어리석은 지식으로 바뀝니다. 지식(知)에 병(疾)이 들면 어리석음(痴)이 됩니다. 병은 자신을 잘 모를 때 생깁니다. 우리는 자신이 틀렸을 때 틀린 줄 알아야 합니다. 모를 때는 모르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화가 났을 때는 화난 것을 알아차려야 하지요. 이렇게 자신을 살피 늘 깨어 있게 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어 있지 못합니다. 화가 나면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 합니다. 욕심에 눈이 멀기도 한다고 하지요.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후회를 합니다. 자기가 한 일인데도 말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들 모습은 깨어 있지 않습니다. 깨어 있다면 스스로에게 경고도 하고 조절도 해 나갑니다. 그러면 괴로움도 좀 줄고 복을 짓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지 않을까요? 이것은 언제나 할 수 있는 깨달음의 공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 있습니다. 깨달음의 본질은 스스로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시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나에 대해, 사람들에 대해, 세상의 이치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았다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는 불안과 의심, 번뇌가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작은 깨달음은 자기의 순간순간의 번뇌가 사라졌음을 의미하고 정각(正覺)이라는 부처님의 깨달음은 모든 번뇌가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작은 깨달음의 체험은 우리도 언제나 합니다. 잘 몰라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뿐입니다. 작은 깨달음의 경험이 내 삶에 조금씩 쌓여간다면 그것은 큰 깨달음의 기초가 됩니다. 아무리 작은 경험이라도 그것이 모아지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은 헤아리기 힘든 미묘한 도리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깨달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실현됩니다. 일상에서 깨달음을 얻는 방법은 많을 것입니다. 수행이 부족한 제가 그 답변을 완전하게 드릴 수 없어 안타깝지만 노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자신의 환경과 처지에 맞게 수행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처님께서 얻으신 깨달음의 ‘참 맛’을 만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회소식 NEWS

- 3째주 일요일에는 지난 달에 이어서 관세음 보살 보문품경 사경법회가 있습니다. 모두가 경건한 마음으로 사경법회에 임해 주십시오.
- 4째주에는 한국에서 귀중한 발걸음을 해주신 지명스님과 지성스님을 모시고 야외법회가 있습니다. 신도님들과 회의를 걸친 후 야외 법회 장소와 시간은 차후에 공지 하겠습니다. 신도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불국사 주지 선각 스님이 불국사 후원회 법회, 남평후인 흥법 문정모 회장님 49 제 (7월 12일 한국 대구시 소재 대한 불교 조계종 삼보사에서 갖는다. 전화번호: 053-768-5220), 불국사 부지 마련을 위한 땅불사, 사찰 조감도, 영문 팜플렛 준비 등등의 일로 7월 6일부터 7월 19일까지 2주간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 기간동안 불국사나 선각 스님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으신 신도님들은 불국사에 기거하시는 지명 스님이나 지성 스님께 연락을 주시던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국사 후원회로 연락 바랍니다. 이 기간중의 토요일 참선 법회나 일요일 정기 법회는 차질 없이 진행합니다. 바쁜일이 있으시더라도 법회에 참석해 주시고 또한 협조해 주십시오.
- 불명을 받는다는 것은 자신이 부처님 제가 됨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불명이 없으신 신도님들 중에서 불명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신도님들은 불국사로 신청해 주십시오. 불명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불교 기초교리를 이수한 후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계를 받으실 신도님들은 사찰로 연락 주십시오.
- 9월둘째주 일요일인 9월 10일에 세인트루이스에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분들에게 점심공양이 있습니다.

- 6월 신규 인등 기도 동참자: 27번 무량화 김봉순, 28번 남평후인 흥법 문정모 영가, 105번 Lawson Robinson, 116번 박래원, 118번 박미영, 119번 박미진, 210번 백민경, 271번 지명스님, 272번 지성스님, 351번 김기홍, 352번 김미경, 353번 김정호, 354번 김창호, 355번 송재현, 356번 서문순, 357번 송영호, 358번 이인석,
 인등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2째주 일요일에 있습니다. 인등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을 모시는 가람을 지으면, 그가 후세에 태어나는 곳마다 지혜와 복덕이 구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중생들은 사바세계가 혼탁하고 타류가 거셀수록 부처님의 자비하신 참모습을 그리워하고 그 정신대로 살고자 더욱 간절한 원력을 세웁니다. 또한 물질과 마음의 정서가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마음의 교양과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담당해 줄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불교인구가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불교 포교를 위해서 법당과 선방 건립에 필요한 한 평 불사 인연에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자비심이 지극하신 분들의 정성으로 이룩된 붓다나라 템플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불국토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희망차고 기쁨에 찬 수행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지은 이 인연공덕으로 불자님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여 자비의 문이 열리고 이 세계가 불국토 정도 되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불국사 회장님이나 총무님, 또는 불국회 회장님 및 불국회 두분 총무님께 연락 주십시오.

6월 한 평 불사 동참자: 정법안 조양임, 김 영희.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 합시다.